

첫 임상실습이 간호대학생의 전문직관, 역할갈등,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박은희*, 황란희**

광주여자대학교 간호학과*, 광주여자대학교 간호학과**

Change in the Nursing Professionalism, Role Conflict and Job Satisfaction of the Nursing Students before and after their first Clinical Experience

Eun-Hee Park*, Ran-Hee Hang**

Dept. of Nursing, Kwang-ju Women University*

Dept. of Nursing, Kwang-ju Wome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간호학생이 첫 임상실습을 경험한 후 달라진 전문직관, 직무만족, 역할갈등의 변화를 파악하며 간호학생의 임상 실습교육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첫 임상실습 후 간호학생의 전문직관($t=-2.184, p=.031$), 직무만족($t=-2.068, p>.001$)은 상승하였다. 그러나 부정적 요소인 역할갈등($t=-3.729, p>.001$) 역시 상승하였다. 즉, 간호학생은 첫 임상실습을 통해 예비간호전문인으로서 바른 전문직관을 세우고 자신의 업무에 대해 만족감을 느꼈다. 그러나 간호학생은 첫 임상실습을 통해 임상에서의 현실적인 간호사 역할을 경험한 후, 오히려 심각하게 자신의 미래 직업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역할갈등의 하부영역 중 개인 내 갈등($t=-3.729, p>.001$), 역할모호성($t=-5.720, p>.001$)에서 심각한 갈등을 느끼므로, 간호학생을 위한 업무기준과 직준표준 안 마련에 대해 간호교육계 및 임상실무 현장 전반에 걸쳐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간호학생, 임상실습, 전문직관, 역할갈등, 직무만족

Abstract This study was attempted to provide nurse students with basic materials to improve their clinical practices, and to investigate changes in their views on Nursing Professionalism, Job satisfaction, and role conflicts. After experiencing clinical practices, their nursing professionalism($t=-2.184, p=.031$) and job satisfaction ($t=-2.068, p>.001$) increased but role conflict ($t=-3.729, p>.001$) increased as well. They were satisfied with their jobs, building up nursing professionalism through clinical practices. However, they had also acquired time on thinking about their future jobs more deeply than before practices and realizing their roles in real sense. In particular, they felt stress in some of subcategories, personal inner conflicts ($t=-3.729, p>.001$), role obscurity ($t=-5.720, p>.001$) so it is necessary to review standards on their job and task in nurse education and clinical practices.

Key Words : Nursing student, Clinical Practice, Nursing Professionalism, Role Conflict, Job Satisfaction

Received 10 November 2016, Revised 28 December 2016
Accepted 20 January 2017, Published 28 January 2017
Corresponding Author: Ran-Hee Hang
(Kwang-ju Women University)
Email: rhhwang@kwu.ac.kr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최근 언론은 종합병원 간호파트의 신규간호사에 대한 굳기잡기, 속칭 “태움”문화에 대한 고발 기사를 보도하였다. 이를 계기로 간호계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까지 고질적인 간호계의 문제를 인식하게 되었고, 간호계 조직문화의 병폐가 사회적 이슈로 조명되었다[1]. 이에 간호교육계는 임상상황의 특이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이런 부정적 조직문화에 대한 원인과 근본대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조직문화의 변화를 갖기 위해서는 간호교육부터 근본적 변화가 불가피하다.

현재까지 간호교육은 질적 간호에 목적을 두고, 그에 준한 교육적 노력을 지속해왔다. 특히 임상실습의 경우, 간호학생이 임상환경에 적응하고 간호사로서 확고한 역할인식을 획득해 굳건한 직업관을 세우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2]. 그러나 임상실습은 간호학생이 조직 문화를 처음 접하는 교육 현장이므로 학생에게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병원들은 경영효율성 향상을 위해 다방면으로 각고의 노력중이다. 특히 구성원들의 직무만족, 조직에 대한 헌신, 충성심 등이 성공경영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어 각 병원들은 전문인력 관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3]. 전문인력의 확고한 전문직관은 환자만족 중심 병원의 근본요건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병원경쟁력의 선결요인이다[4]. 즉, 조직 내 확고한 전문직관을 가진 구성원이 많을수록 구성원 모두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쳐 구성원이 조직에 더욱 몰입하게 하고, 높은 수준의 직무만족을 느끼게 된다. 이는 업무 효율성을 높여 질적 간호 수준향상과 병원 경쟁력 상승을 가져온다[5].

간호학생이 자신에 대한 이해가 확고하면 임상상황에서 발생하는 긴장, 정체성 혼란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다. 이것은 자신이 수행하는 간호술기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간호수행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높은 수준의 임상수행능력을 나타낸다[6]. 그러나 임상실습 교육과정을 경험하는 대부분의 간호학생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시기에 있으며[7], 아직은 전공교육을 이수중이라 전문직업인의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성숙한 직업적 태도를 보이기는 무리가 있다[6]. 특히 전문직관의 경우, 전문성을 띤 전문직업인 모델을 통해 발전하는 습성이 있어 학교 내 교육자를 통해 갖춰지기 시작해 임상현장의

선배 간호사에게서 영향을 받게 된다[8]. 또한 전문직관은 환경적 영향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론과 실습의 격차로 인한 혼란, 실습상황의 복잡성, 의료진과 환자와의 관계형성 어려움, 어렵게 형성한 환자와의 관계가 빠른 병상 회전을 위해 좌절되는 등 다양한 현실적 문제를 간호학생이 경험할 때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9]. 그러므로 첫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학생들의 전문직관이 임상실습을 통해 어떤 변화과정을 겪는지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전통적인 간호개념 밑바탕에 내재한 친절과 보살핌은 간호사에게 끝없는 감정노동을 요구한다. 더불어 병원의 비용절감 차원의 인력감축, 남아있는 인력의 업무과중, 사기저하, 환자 및 의료진의 감정적 요구에 대처 등 간호사는 다중의 감정적 갈등을 느낀다[10]. 이에 대부분의 임상간호사들은 이상과 현실적 역할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현실적 충격과 함께 소진을 경험한다. 이로 인해 일부 간호사는 이직, 결과과 같은 부정적 행태의 태도를 취하기도 한다[11]. 이런 임상현장의 부정적 상황은 막연한 이상을 갖고 첫 임상실습을 접한 간호학생들에게 선배간호사의 역할갈등, 고민을 자신의 미래에 투영하게 한다. 또한 간호학생은 이상적 형태의 근무환경과 동떨어진 현실, 동료들로 인한 업무 갈등, 자신의 지식 및 임상술기 부족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한 내적 갈등, 법적 문제를 포함한 윤리적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느끼고 역할갈등을 경험한다[10]. 더불어 간호학생은 학습자와 일하는 자 두 가지 영역 안에서 무력감을 경험하기도 한다[12].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학생은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며 긍정적으로 갈등관리를 하거나 현실부정 혹은 실습교육 자체를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등 수동적 태도를 취하는 등의 선택을 한다[13]. 그러므로 간호학생이 겪는 역할갈등의 각 요소가 시간의 흐름과 함께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역할갈등에 대한 연구는 임상현장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8].

이에 본 연구는 생애 처음 간호학생으로서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전문직관, 직무만족, 역할갈등을 첫 임상실습 전후로 비교해 간호학생이 올바른 가치관을 세우고 전문직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방법

본 연구는 간호학생이 첫 임상실습을 경험한 후 달라진 전문직관, 직무만족, 역할갈등의 변화를 파악하여 간호학생의 임상실습교육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자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첫 임상실습을 앞둔 간호학과 3학년을 대상으로 전문직관, 직무만족, 역할갈등이 첫 번째 임상실습을 전후로 변화하는 것을 평가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대상자는 G시의 일개 대학의 간호학과 3학년을 대상으로 총 103명이었으며, 연구목적에 설명한 후, 참여의사를 서명으로 동의 받았다. 최종분석은 자료 및 서명 미비 등을 제외한 95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사전 자료수집은 첫 임상실습을 바로 앞둔 2015년 12월 첫 주에 시행되었으며, 사후 자료수집은 첫 임상실습 지인 수술실, 내과, 외과 실습이 끝난 2016년 6월에 시행되었다.

2.3 측정도구

2.3.1 간호전문직관

간호전문직관은 윤은자, 권영미, 안옥희[14]가 개발한 도구를 한진수[15]가 수정·보완해 18문항으로 축소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18문항으로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전문직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는 윤은자, 권영미, 안옥희[14]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91,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864이었다.

2.3.2 직무만족

직무만족은 McCormick과 Tiffin[16]이 개발한 도구 중 직무만족에 관련된 5개 문항을 추출하여 김중재[17]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5문항으로 Likert 7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전문직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는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821이었다.

2.3.3 역할갈등

역할갈등은 송영미[18]가 교사의 역할 갈등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를 본 연구자와 1인의 간호학 교수가 간호학생에게 맞게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20문항으로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역할갈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는 송영미(2005)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910,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866이었다.

2.4 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 18.0을 이용해 분석하였고,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분석하였고, 임상실습 전후의 변수에 대한 차이는 대응표본 T검정(paired t-test)을 실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전, 사후 변수 차이는 One-Way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정은 Scheffe's test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평균나이는 21.65±2.80세, 간호학 선택 이유는 '본인의 희망' 41.1%, '주변인의 권유' 54.7%, '기타' 4.2%순이었다. 임상실습에 대한 스트레스는 '지식부족' 71.6%로 지식부족에 대한 스트레스를 상당수 학생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실습 전 실무 지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임상실습 동안 기대"는 '간호사 역할 학습' 70.5%, '직접 환자 간호' 26.3%, '의료진과 관계형성' 3.2%로 간호학생 대부분은 간호사로서 자신의 본연의 임무를 위한 교육을 기대하고 있었다<Table 1>.

3.2 변수차이검정

전문직관은 사전평균 3.71±0.39점, 사후평균 3.82±0.49점으로 사후에 0.46점이 상승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2.184$, $p=.031$). 하부영역은 사회적 인식($t=-5.450$, $p>.001$), 간호독자성($t=3.475$, $p=.001$)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하부영역을 살펴보면 간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임상실습 후 높아지는 반면 간호독자성은 실습 후 오히려 낮아졌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ategories	Classification	M(SD) or n(%)
Age		21.65(2.80)
Sex	Female	95(100)
Selected reason for Nursing	My hope	39(41.1)
	Advice of the associated people	52(54.7)
	etc	4(4.2)
Type of personality	Very positive	5(5.3)
	Positive	74(77.9)
	Negative	13(13.7)
	etc	3(3.2)
Stress from clinical practice	Communication with staff	7(7.4)
	Practice	9(9.5)
	Lack of knowledge	68(71.6)
Academic achievement	Adapted to the clinical practice	11(11.6)
	Very good	3(3.2)
	Moderate	53(55.8)
Ordinary impression of nurses	Very low	39(41.1)
	Very professional	25(26.3)
	Lack of profession	3(3.2)
Expectations for clinical Practice	Negative	67(70.5)
	Direct patient care	25(26.3)
Expectations for clinical Practice	Relationships	3(3.2)
	Learning nurse role	67(70.5)

직무만족은 사전평균 3.42±0.71점, 사후평균 3.58±0.71점으로 사후에 0.16점이 상승하였다(t=-2.310, p=.023).

역할갈등은 사전평균 2.78±0.39점, 사후평균 2.88±0.44점으로 0.10점 상승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2.068, p=.041). 역할갈등의 하부영역은 모든 영역에서 사후 평균점수가 높아졌으며, 특히 개인 내 갈등(t=-3.729, p>.001), 역할모호성(t=-5.720,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able 2>.

<Table 2> The difference of pre-post test between the variables

Variables	Pre-test	Post-test	t	p
	M(SD)	M(SD)		
Nursing Professionalism	3.71(0.39)	3.82(0.49)	-2.184	.031*
Self-concept of the profession	3.90(0.45)	3.94(0.53)	-.544	.588
Social awareness	2.34(0.34)	3.53(0.68)	-5.450	>.001*
Professionalism of nursing	3.90(0.57)	4.15(1.53)	-1.644	.103
Roles of nursing service	3.85(0.68)	3.87(0.66)	-0.227	.821
Originality of nursing	4.13(0.85)	3.67(1.13)	3.475	.001*
Job Satisfaction	3.42(0.71)	3.58(0.71)	-2.310	.023*
Role Conflict	2.78(0.39)	2.88(0.44)	-2.068	.041*
Intra role conflict	2.64(0.52)	2.76(0.62)	-1.536	.128
Intra person conflict	2.99(0.53)	3.21(0.54)	-3.729	>.001*
Inter role conflict	2.89(0.46)	2.98(0.52)	-1.515	.133
Role Ambiguity	2.62(0.57)	3.05(0.78)	-5.720	>.001*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전변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라 임상실습 전 변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전문직관은 일반적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직무만족은 간호학 선택 이유(F=4.434, p=.015), 평소 자신의 성격(F=2.860, p=.041), 학업성취 정도(F=6.235, p=.003), 평소 간호사 이미지(F=5.670, p=.005)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간호학생이 간호학을 자신이 희망하여 선택한 경우, 평소 긍정적인 성격인 경우, 학업성취정도가 높은 경우, 평소에 간호사 이미지가 좋은 경우 직무만족이 높게 측정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는 학생들이 아직은 임상실습 전이므로 현실적인 간호사의 직무가 반영되었다기보다 간호교육을 받는 동안 형성된 이상적 형태의 간호사 직무에 대한 만족함을 의미한다.

역할갈등은 임상실습 전에 집단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3>.

3.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후변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후 변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전문직관은 집단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직무만족은 간호학 선택이유가 ‘자신의 희망’인 경우 ‘주변인의 권유’보다 직무만족을 더 높게 느끼고 있었다(F=5.058, p=.008). 평소의 간호사 이미지는 ‘매우 긍정적인 전문직’으로 인식하고 있는 대상자가 ‘전문직으로 부족’과 ‘부정적’으로 응답한 대상자에 비해 직무만족이 높았다(F=4.778, p=.011).

역할갈등은 “학업성취정도”가 집단 간에 차이를 보였다(F=5.058, p=.008). 특히 ‘학업성적이 좋음’이 ‘보통’과 ‘매우 낮다’ 보다 상승해 학업성취정도가 좋을수록 간호학생은 임상실습 이후 역할갈등을 심하게 느꼈다<Table 4>.

4. 논의

본 연구는 첫 임상실습을 앞둔 간호학과 3학년생을 대상으로 전문직관, 직무만족, 역할갈등이 첫 번째 임상실습을 전후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시행되었다. 또한 처음으로 임상현장을 경험한 간호학생의 실제적인 결과를 분석해 봄으로써 간호교육 현장에 변화가 필요한 요소를 확인하고자 함이다.

<Table 3> The difference of pre-test variable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ategories	Classification	Nursing Professionalism	Job Satisfaction	Role Conflict
		M(SD)	M(SD)	M(SD)
Selected reason for nursing	My hope	3.76 (0.41)	3.64 (0.72)	2.76 (0.41)
	Advice of the associated people	3.65 (0.37)	3.23 (3.75)	2.82 (0.34)
	etc	3.88 (0.34)	3.42 (0.71)	2.50 (0.77)
F(p)		1.273 (.285)	4.434 (.015)* 1>23	1.388 (.255)
Type of personality	Very positive	4.01 (0.26)	3.88 (0.82)	2.66 (0.81)
	Positive	3.72 (0.39)	3.48 (0.68)	2.80 (.37)
	Negative	3.54 (0.41)	2.96 (0.67)	2.73 (0.38)
	etc	3.61 (0.33)	3.19 (1.07)	2.96 (0.15)
F(p)		1.911 (.133)	2.860 (.041)*	.463 (.708)
Stress from clinical practice	Communication with staff	3.47 (0.23)	3.04 (0.44)	2.60 (0.34)
	Practice	3.85 (0.41)	3.73 (0.67)	2.65 (0.23)
	Lack of knowledge	3.62 (0.47)	3.46 (0.69)	2.81 (0.41)
	Adapted to the clinical practice	3.71 (0.39)	3.15 (0.91)	2.83 (0.39)
F(p)		1.522 (.214)	1.838 (.146)	1.024 (.386)
Academic achievement	Very good	4.09 (0.49)	4.23 (0.70)	2.60 (0.08)
	Moderate	3.67 (0.34)	3.56 (0.70)	2.72 (0.40)
	Very low	3.72 (0.44)	3.16 (0.64)	2.88 (0.38)
F(p)		1.687 (.191)	6.235 (.003)* 1>23	2.098 (.129)
Ordinary impression of nurses	Very professional	3.77 (0.33)	3.72 (0.72)	2.69 (0.57)
	Lack of profession	3.69 (0.41)	3.36 (0.67)	2.80 (0.32)
	Negative	3.71 (0.39)	2.42 (0.62)	3.03 (0.16)
F(p)		.797 (.454)	5.670 (.005)* 1>3	1.253 (.290)
Expectations for clinical practice	Direct patient care	3.70 (0.32)	3.39 (0.67)	2.77 (0.42)
	Relationships	3.68 (0.30)	3.38 (1.21)	2.80 (0.52)
	Learning nurse role	3.71 (0.42)	3.43 (0.72)	2.79 (0.38)
F(p)		.017 (.983)	.034 (.697)	.038 (.963)

* p>.05 , ** Scheffe's test

<Table 4> The difference of post test variable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ategories	Classification	Nursing Professionalism	Job Satisfaction	Role Conflict
		M(SD)	M(SD)	M(SD)
Selected reason for nursing	My hope	3.84 (0.46)	3.83 (0.66)	2.92 (0.41)
	Advice of the associated people	3.82 (0.53)	3.37 (0.69)	2.87 (0.45)
	etc	3.68 (0.32)	3.71 (0.54)	2.65 (0.74)
F(p)		.192 (.825)	5.058 (.008)* 1>23**	.711 (.494)
Type of personality	Very positive	4.07 (0.27)	3.37 (0.61)	2.68 (0.68)
	Positive	3.84 (0.51)	3.68 (0.70)	2.86 (0.43)
	Negative	3.68 (0.46)	3.14 (0.70)	3.05 (0.46)
	etc	3.51 (0.19)	3.23 (0.35)	3.08 (0.20)
F(p)		1.237 (.301)	2.690 (.051)	1.250 (.296)
Stress from clinical practice	Communication with staff	3.48 (0.41)	3.18 (0.48)	2.72 (0.38)
	Practice	3.94 (0.53)	3.53 (0.59)	2.79 (0.65)
	Lack of knowledge	3.85 (0.49)	3.70 (0.56)	2.90 (0.44)
	Adapted to the clinical practice	3.79 (0.47)	3.11 (0.99)	2.96 (0.28)
F(p)		1.389 (.251)	3.156 (.029)	.559 (.644)
Academic achievement	Very good	4.00 (0.61)	4.33 (0.71)	3.50 (0.73)
	Moderate	3.81 (0.54)	3.59 (0.74)	2.77 (0.39)
	Very low	3.82 (0.49)	3.49 (0.64)	2.99 (0.44)
F(p)		.185 (.832)	2.001 (.141)	6.175 (.003)* 1>23**
Ordinary impression of nurses	Very professional	3.86 (0.43)	3.59 (0.66)	2.90 (0.52)
	Lack of profession	3.82 (0.52)	3.62 (0.67)	2.88 (0.43)
	Negative	3.59 (0.21)	2.38 (0.95)	2.86 (0.29)
F(p)		.388 (.679)	4.778 (.011)* 1,2>3**	.023 (.977)
Expectations for clinical practice	Direct patient care	3.83 (0.46)	3.65 (0.65)	2.92 (0.48)
	Relationships	4.05 (0.43)	4.19 (1.05)	2.65 (0.86)
	Learning nurse role	3.81 (0.51)	3.52 (0.71)	2.88 (0.44)
F(p)		.344 (.717)	1.471 (.235)	.509 (.603)

* p>.05 , ** scheffes test

본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간호학을 선택하게 된 이유”에 대해 “주변의 권유”가 54.7%, “자신이 희망”한 경우가 41.1%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간호직의 높은 취업률이 반영된 결과이다[14]. “성격타입”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83.2%로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대상자 13.7%보다 많았다. 간호학생의 성격이 긍정형이 더 많은 것은 고취할 만한 것으로, 이들이 미래에 질병을 가진 대상자를 간호해야 한다는 점, 더불어 환자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장점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대해 “지식부족”이 71.6%로 간호학생은 임상실습 전에 자신의 부족한 지식에 대한 부담을 느꼈다. 이에 학교 교육이 임상현장에 적합한 교육과 지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8]. 더불어 현장지도자의 적절한 정서적 지지도 필요할 것이다.

“평소 간호사 이미지”에 대한 응답은 “부정적”이 70.5%, “긍정적”이 26.3%, “전문성이 부족하다”로 응답한 경우가 3.2%로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 중 다수가 간호사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환자와 보호자보다 의사나 간호사가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를 낮게 평가한 것과 같은 결과로 일반인보다 동료의료인이 간호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높아 그 원인에 대한 면밀히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7, 21]. 이에 대해 선행연구자는 이례적으로 그 원인으로 대중매체의 영향을 들었다. 즉, 대중매체에 표현된 간호사의 이미지가 전문성보다는 보조 혹은 주변인으로 표현되기 때문으로 지적하며 간호사가 체계화된 관리시스템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함을 강조한다[7]. 그러므로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간호직 전문성 인식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간호학생의 전문직관은 사전 3.71점에서 사후 3.82점으로 사전에 비해 사후에 0.46점 상승하였다. 이는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연구의 3.71점[19], 간호학생 대상의 간호전문직 영향연구의 3.83과 비슷한 수치이다[20]. 전문직관의 하부영역은 임상실습 전에 비해 실습 후에 대부분 상승하였다. 이는 임상실습과 같은 실제적인 교육을 이수함과 동시에 점차적으로 수준 높은 간호교육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확고한 간호정체성이 간호사의 역할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의 바탕이 되

므로 확고한 전문직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한다[21]. 특히 하부영역 중 사회적 인식은 선행연구에서도 모두 높은 점수를 보인다. 이는 간호에 대한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인식되어 간호사에 대한 위상이 상승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특이하게 하부영역 중 간호독자성은 사후에 3.67점으로 오히려 사전에 비해 0.46점 하락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임상실습과 교과서의 교훈내용과의 괴리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된다[19, 23]. 그러므로 간호학생이 진료보조업무 역시 간호독자성을 갖추고 보건업무 중 사자간의 협력적 관계에서 비롯된 업무임을 인식시키는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간호학생의 직무만족은 사전 3.42점(7점 만점)에서 사후 3.58점으로 0.16점 증가했다. 이를 감염관리간호사 대상의 연구 2.99점(5점 만점)과 비교하기 위해 환산하면 사전 2.44점, 사후 2.56점으로 선행연구에 비해 낮은 점수이다[24]. 이와 같은 결과의 원인은 본 연구대상자가 간호학생인 까닭에 아직은 간호업무를 직접수행하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선행연구들은 일반병동 간호사보다 중환자실 간호사와 같이 업무에 난이도가 높고, 직접간호에 참여할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아졌음을 보고한다[25, 26] 즉, 간호사의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환자와 접촉하는 시간을 늘리고, 고난도의 간호업무를 자신감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자신의 업무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27].

간호학생의 역할갈등은 사전보다 사후에 유의하게 높아졌다. 이는 임상실습이 간호학생에게 간호사의 역할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음을 의미한다($t=-2.068, p>.001$). 본 연구에서 역할 갈등은 임상실습 후 2.88점으로 간호학생 대상 연구 3.49점[28], 감염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 3.67점[24]보다는 낮게 측정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보이는 것은 본 연구대상자가 처음 임상실습에 투입되어 임상실습에 대한 경험이 매우 부족하고, 임상의 현실적 괴리감을 아직은 심각하게 느끼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선행연구자는 임상실습 경험이 증가할수록, 고학년이 될수록 임상현장에 대한 기대도가 상승하며, 고학년이 될수록 간호사에 대한 역할 동질성 추구에 대한 갈망이 높아지기 때문에 전문직업인으로서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음을 시사한다[27].

역할갈등의 하부영역 중 개인 내 갈등($t=-3.729, p>.001$), 역할모호성($t=-5.720,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개인 내 갈등은 개인의 내적욕구와 간호업무와의 갈등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18]. 임상실습과 같은 낮은 환경에서 간호실습생으로서의 역할과 업무에 대해 간호 학생은 심각한 갈등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역할모호성은 업무의 불확실에서 느끼는 갈등이며 또한 정보부족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의미한다[18]. 실제 임상현장은 간호학생이 시행해야 하는 업무기준이나 표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다. 이에 간호학생은 환자 직접간호에서부터 간호조무 업무까지 다양한 업무에 참여하게 된다. 더불어 병원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기 보다는 병동위치와 체계도 등 개략적인 하드웨어적인 정보만 제공받기 때문에 병원 시스템 전반에 간호업무가 유기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간호학생을 위한 업무기준과 표준안에 대한 논의가 간호교육계 및 임상실무 현장 전반에 걸쳐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라 임상실습 전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직무만족은 자신이 간호학을 선택한 경우, 성격이 긍정적인 경우, 학업성취도가 높을 때, 평소간호사 이미지가 좋을 때 직무만족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임상실습 후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검증한 결과 직무만족에서 간호학선택 사유($F=5.058, p=.008$), 평소간호사 이미지($F=4.778, p=.011$)에서 차이를 보였다. 즉, 임상실습을 전후로 성격이나 자신의 학업수준 등의 개인적인 성향보다는 전공학습을 견뎌낼 수 있는 내외의 동기가 매우 중요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6]. 즉, 간호학을 선택한 것이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경우에 직무만족이 높게 측정된 것이다. 이는 간호사에 대한 어린 시절의 막연한 열망이 점차적으로 자신의 직업으로 구체화되는 임상실습을 통해 간호업무에 대해 만족하거나 자신의 전공 선택에 대한 어려움을 스스로 감당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평소 간호사 이미지는 학생 스스로 내부에서 형성한 경우도 있으나 대중매체 혹은 주변인의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가 투영되기도 한다[7]. 그러므로 대중매체에 노출되는 간호사에 대한 모습이 긍정적이고 전문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간호단체의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역할갈등의 경우 학업성취정도가 “매우 좋다”가 “보

통”과 “매우 부정적”인 경우 보다 역할갈등을 더 높게 느꼈다. 즉, 자신이 학업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좋은 성적을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간호사의 역할이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함이 반영된 결과로 보여진다. 이는 간호학 전공 학업에 최선을 다 해온 학생들이 간호학에 흥미를 잃게 하거나 간호사로서 직업적 열망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간호학생이 임상실습 이후 간호전문직에 대한 열망이 식지 않도록 간호현장의 간호사의 전문적 이미지를 강화해 간호학생의 갈등요소를 줄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 첫 임상실습을 경험을 한 후, 간호학생들이 느끼는 전문직관, 직무만족은 상승하여 임상실습 자체가 간호학생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임상실습을 통해 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갈등은 심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임상실습을 통해 자신의 직업에 대해 바른 전문직관을 세우며, 직무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면서도 간호사라는 직업적 갈등을 경험한다. 특히, 학업 성취가 좋은 학생들이 더 갈등을 느끼는 것에 대해 세심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모든 하부영역에서 역할갈등이 상승하므로 간호학생의 역할갈등을 줄여줄 수 있는 교육안의 마련 및 현장과 간호교육자 모두가 동참하여 간호학생의 업무표준안을 제시하여 간호학생의 갈등을 줄여주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Medical Times: <http://www.medicaltimes.com/Users4/News/newsView.html?ID=1106923>, 2016.09.6
- [2] G. S. Oh, M. K. Lee, “An Internship Experience to Convergence Program for Undergraduated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5, PP. 173-185, 2015.
- [3] B. D. Hwang, “Realities of a Hospital’s web-site’ Management and It’s Effect on Hospital Management”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0, No. 3. pp. 241-249. 2010.
- [4] Y. S. Moon, S. J. Han. “Impact of Self-efficacy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7, No. 1, PP. 72-79, 2011.

- [5] B. D. Hwang,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Hospital Administrative Staffs according to Their Major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8. No. 6. pp. 186-194. 2008.
- [6] O, G. Kwag, Y. H. Kwon, "A Study on Daily Living Abilities, Self-efficacy and Yangsaeng Behavior in Elderly Men (Yangsaeng; 養生 traditional oriental health promo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Vol. 24. No. 1, pp. 11-19. 2013.
- [7] M. K. Lee, B. K. Kim, "A Study on Analysis of the Adolescent Identity Appearing in the Psychological Theory of Erickson" *Journal of the Korea Welfare practice*, Vol. 5. No. 2, pp. 83-101, 2013.
- [8] Y. S. Ham, H. S. Kim, I. S. Cho, J. Y. Lim, "Affecting Factors of Nursing Professionalism Perceived by Seni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7, No. 3, pp. 536-544, 2011.
- [9] H. R. Kim, E. Y. Choi, H. Y. Kang, S. M. Kim, "The Relationship among Learning Satisfaction, Learning Attitude, Self - efficacy and the Nursing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after Simulation - based Education on Emergency Nursing Car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7, No. 1, pp. 5-13, 2011.
- [10] H. A. Kang, "Changes in labor nursing profession," *Journal of Economic and social*. Fall Edition. Vol. 55. pp. 142-168. 2002.
- [11] S. H. Kim, M. A. Lee, "Effects of Emotional Labor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on Turnover Intention in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20. No. 3. pp. 333-342. 2014.
- [12] E. J. Lee, W. H. jun, "Original Articles : Sense of Coherence and Stress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9, No. 2, pp. 163-171, 2013.
- [13] S. N. Lee, "Research of role conflicts of medical insurance review nurses in tertiary hospital"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14] Y. M. Kwon, E. J. Yeun, Y. H. Ann. "Development of a Nursing Professional Values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35 No .6, PP. 1091-1100, 2005.
- [15] S. S. Han, M. H. Kim, E. K. Yung. "Factors Affe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4, No. 1. pp.73-79, 2008.
- [16] McCormick, E. J., Tiffin, J. *Psicologia Industrial*. EPU. 1977.
- [17] J. J. Kim. "Study on the effect of conflict and personality in school's organization on the level of job satisfaction -a test to solution of conflict and parameter of organization's atmosphere" Unpublished PhD thesis Wonkwang University, Seoul, 2007.
- [18] Y. M. Song "Role Performance and Role Conflict of ECE and ECSE Teachers in Inclusive Setting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8, No. 3. pp. 67-87, 2008.
- [19] Y. J. Ko, I. K.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 Nursing Value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7, No. 1. pp. 62-71, 2011.
- [20] S. H. Lee. "The Effect of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Satisfaction on Nursing College Students and Their Nursing Professionalism"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Seoul, 2016.
- [21] Y. M. Kwon, E. J. Yeun, "Nursing Image and Professionalism Perceived by Male and Female Nursing Students in Colleg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8, No. 3. pp. 510-521, 2012.
- [22] M. N. Ha, "The Effects of Nursing Practice Environment on Nursing Professionalism for New Nurses"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Dong-A University, Busan, 2013.
- [23] S. H. Ko, "Nursing Professionalism and Job Satisfaction of Nurses in General Hospital"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10. No. 3. pp. 335-343. 2004.
- [24] S. Her. K. H. Kim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 Job Stress Measurement Tool for Infection Contro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24. No. 4. pp. 327-338. 2012.
- [25] K. B. Kim, S. H. Sok. “A Study of Job Satisfaction of the Nurses in a University Hospital”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ch. Vol. 12. No. 1. pp. 14-24. 2006.
- [26] Sveinsdottir, H. Biering, P. and Ramel, A. “Occupational stress, job satisfaction, and working environment among Icelandic nurses: A cross-sectional questionnaire survey”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Vol. 43, PP. 875-889. 2006.
- [27] J. A. Han, M. J. Kim. “The Convergence Study of Interpersonal Caring Behaviors on Anger, Job Stress and Social Support in Nurses” Journal of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7, No. 3, PP. 87-98, 2016.
- [28] N. S. Ha, J. Choi “An Analysis of Nursing Competency affecting on Job Satisfaction and Nursing Performance among Clinic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16. No. 3. pp. 286-294. 2010.

박 은 희(Park, Eun Hee)



- 2010년 8월 : 조선대학교 간호학박사
- 2011년 3월 ~ 2013년 2월 : 목포가톨릭대학교 조교수
- 2013년 3월 ~ 현재 : 광주여자대학교 조교수
- 관심분야 : 임상교육, 성인건강문제, 지역사회건강문제, 보건기초교육
- E-Mail : juliana@kwu.ac.kr

황 란 희(Hwang, Ran Hee)



- 1983년 2월 : 전남대학교 간호학과 (이학사)
- 1985년 8월 : 전남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01년 2월 : 경희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1997년 3월 ~ 현재 : 광주여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여성건강
- E-Mail : rhhwang@kwu.ac.kr